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June 2014

Family Travel Look

글루텐 프리가 뭐길래

2014 아트 바젤 홍콩 관람기

My Favorite Destinations



Sulwhasoo

베르사유 궁, 400년의 금기를 깨다

Jean-Michel Otoniel

유리공예에 기반한 아름다운 비즈 조각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 장 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oniel). 컨템퍼러리 아트에서는 흔치 않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지닌 탓에 그의 작품은 전 세계의 유서 깊은 공간들이 앞다퉈 '모셔'갈 만큼 인기가 높다. 파리의 루브르 메트로 역에 영구 설치된 'Kiosk of the Night-walkers', 알람브라 성, 뉴올리언스 뮤지엄의 정원, 베니스의 빌라 메디치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이 공간을 얼마나 우아하게 뒤바꾸는지는 이미 증명된 지 오래다. 그런 그가 현대미술가로서는 최초로 베르사유 궁에 작품을 영구 설치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작품의 이름은 '레 벨 댄스(Les Bells Danses)'로, 꽤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루이 14세의 춤을 형상화한 고서를 발견하고, 이것이 베르사유 궁 화단의 당초 문양과 유사하다는 데서 힌트를 얻은 것. 클래식 발레의 기원이 되었던 프랑스 궁중 댄스, 그 유연한 스텝이 베르사유 궁의 분수 안에 형상화된다니 이보다 더 적절한 해석이 있을까. 울여름이면, 베르사유의 정원에서 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Web** www.chateauversailles.fr



© Fabrice Moireau

1 조경 전문가 루이 비네시와 장 미셸 오토니엘이 '레 벨 댄스'를 위해 작업한 스케치. Bassins et deux des fontaines à mi-distance de la Salle. Aquarelle, 2011.
2 베르사유 궁전에 설치될 작품의 일부.

